■ 민족문화연구 제83호(2019.05.31),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pp.13-43.
http://doi.org/10.17948/kcs.2019..83.13

【특집1: 조선시대 유서(類書)의 지식학적 검토】

조선후기 유서 지식의 성격*

김문용(金文鎔)**

목 차

1. 유서와 지식의 문제
2. 유서의 성격과 범위
3. 박학에서 박물로: 지식의 확장
4. 명물에서 도수로: 지식의 심화
5. 유서 지식의 향배

국문초록

이 글은 조선후기 類書를 통해 집적·전승된 지식의 성격을 검토하는 데 목표를 둔다. 유서는 지식의 회집, 항목화, 분류, 변증이라는 문체 성격을 공유하는 것으로서, 임란 이후 지식의 팽창을 적절히 반영해 낼 수 있었다.

주자학은 원칙적으로 박학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었다. 조선에서 박학에 대한 도학적 경계는 지식이 증대하면서 함께 강화되었다. 18세기 중반 이후 박물 또는 명물도수에 대한 관심이 일부 지식인들에게 확산되면서 양측의 입장과 지향 차이는 좀 더 분명해졌다. 『오주연문장전산고』는 바로 그런 과정의 성취 가운데 하나였다.

유서는 한편으로 한대 이래의 명물학 전통에 기대어 있었다. 명물학은 고전을 지식

* 이 논문은 2016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진흥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AKS-2016-KFR-1230007).
**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교수.

변증의 기준으로 끌어들이고 만물 사이의 위계적 질서 관념을 정당화하는 것이었다. 『오주연문장전산고』에 이르러 박물학에 대한 관심과 병행하여 만물의 수리 질서에 대한 재인식이 나타났다. 그것은 분명 서학의 영향하에 이루어진 것이었지만, 여전히 전통적인 상수학의 외피를 걸치고 있었고, 그나마도 아직 저작 전체를 관통하는 학문방법론 차원의 새로운 함의를 가지는 것은 아니었다. 조선후기 유서의 '물리'는 아직 전통적인 지식체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주제어: 유서, 분류, 변증, 박학, 명물, 박물, 격물, 물리.

1. 유서와 지식의 문제

일찍이 윤사순은 '실학적 경학관'의 첫 번째 특색으로 '박학 방법의 중시'를 거론하였다. 이때 박학이란 '백과사전류의 학문'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당시 지식인들이 '성리학적 지식 세계의 옹색함'에 눈뜨고 '그 현실극복 능력의 한계'를 간파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1] 이런 일련의 주장에 단서가 된 것은 이수광의 『지봉유설』에서 따온 다음 글이다.

> 許國은 학문을 논하는 글에서 이렇게 말했다.[2] "학문에는 義利의 변별보다 앞서는 것이 없다. 옛 성현을 보면 일찍이 글을 외지 않음이 없지만 글을 욈[誦]에 博이 되도록 하지 않았다. 무릇 博에 힘쓰는 것은 남 때문[爲人]인데, 남 때문이라면 곧 利인 것이다." 나는 이렇게 말하겠다. 傳에는 "博學하여 詳說한다."고 했고, "博學하고 審問한다."고도 했다. 박학이란 자기 때문[爲己]에 하는 것이지 남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박학을 남 때문이라 한다면, 아마도 올바른 주장[的論]이 아닐 것이다.[3]

---

1) 윤사순, 「실학적 경학관의 특색」, 『한국유학논구』, 현암사, 1980, 172면.

2) 許國(1527-1596)은 明朝 禮部尙書까지 지낸 인물로, 1567년 사신으로 조선에 다녀갔다. 1609년 遠接使의 製述官을 지냈던 이수광이 『皇華集』에 실린 허국의 시를 차운하여 지은 「次登太平樓次許太史韻二首」가 『지봉집』에 남아 있지만, 위에 인용한 허국의 문장은 출전을 알 수 없다. 한편, 이수광이 遠接使 시절 만나기도 했던 明使 朱之蕃은 허국이 조선에 와서 자신이 대동한 士人에게 시를 대작시키기도 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류기수, 「『皇華集』의 간행과 수록된 明詞에 관한 고찰」, 『중국학연구』 제47집, 중국학연구회, 2009, 121면 참조.

3) 李睟光, 「學問」, 『芝峯類說』 권5. "許國論學書曰, 學莫先於義理之辨, 觀古聖賢, 未嘗不誦書. 但其書之誦, 非以爲博也. 夫務博爲人也, 爲人卽利也. 余謂傳曰博學而詳說之, 又曰博學之審問之, 蓋博學所以爲己, 非爲人也. 今以博學謂之爲人, 則恐非的論也."

이수광은 박학과 爲己之學(또는 義理之學) 사이의 대척 관계를 부인하고 박학에 대한 긍정적 관점을 분명히 하였다. 이는 『지봉유설』로 드러난 자신의 학문 역정을 반영하는 것이면서, 이후의 통칭 백과사전류 저술 편찬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기도 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수광은 박학이 위기지학을 위해 도움이 된다고 말했을 뿐, 박학을 통해 위기지학 너머의 새로운 어떤 것을 지향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박학이 성리학의 지적 옹색과 실천적 한계를 간파・극복하는 데 기여하고, 나아가 성리학과 다른 '조선후기 실학'을 추동했다면, 거기에는 이수광이 간과하거나 묵과한 어떤 사상적 기능이 장착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 글에서는 윤사순이 언급한 조선후기 백과사전류 저술을 類書로 지칭하고, 이 유서를 통해 집적・전승된 지식의 성격을 검토한다. 이때 지식이란 편의상 세계에 관한 언명 일반을 가리키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것은 참이나 이로움 여부와 상관없이 인간 의식의 일부로 자리 잡고 어떤 식으로든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가지는 것으로서의 언명들이다. 이런 의미의 지식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또는 개인의 지적 취향에 따라 범위와 성격을 달리해 왔던 것이고, 따라서 지식론(Theory of knowledge)이 아니라 지식사(History of knowledge)의 대상으로서의 그것을 가리킨다.[4]

지식의 문제는 근래 조선후기 사상사 연구에 새롭게 대두된 주제의 하나라 할 수 있다. 그것은 성리학과 실학의 이항 대립적 구도에서 벗어나 조선후기 사상사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길을 열어갈 것이란 기대를 받는다. 유서는 다른 어떤 유형의 저작보다도 지식의 총화라는 성격이 강했던 만큼, 이

4) 서양의 근대 지식론은 대체로 지식의 진위 판별과 지식 획득의 기제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일상언어학파의 출현과 더불어 이러한 경향에 일정한 변화가 나타났는데, 그 요점 가운데 하나는 '참'을 지식의 전제 조건으로 삼지 않고 '확실하지 않은 지식'도 지식임을 인정하는 데 있다. 정대현, 『지식이란 무엇인가?—지식개념의 일상언어적 분석』, 서광사, 1990, 46면. 한편 지식사의 관점에서는, 근대 초기까지 사람들이 주술이나 마법・천사・악마 등에 관한 언명까지 지식의 범위에 포함시켜 왔다는 사실에 주목하기도 한다. 피터 버크, 박광식 옮김, 『지식의 사회사 1—구텐베르크에서 디드로까지』, 민음사, 2017, 26면. 이에 지식의 단위를 진위 판별이 가능한 명제(proposition) 형식으로 제한하지 않고, 세계에 관한 표상을 담고 있는 다양한 언명(statement)들로 확장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글은 조금이라도 그런 기대에 부응하는 것을 과제로 가진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은 제한을 두고 시작한다. 먼저, 조선후기에 출현한 많은 유서 가운데 특별히 『지봉유설』과 『성호사설』, 『오주연문장전산고』(이하 『오주산고』로 약칭)를 선정하여 검토 대상으로 삼는다. 이것은 세 유서가 그동안 조선후기 실학의 중요한 성과이자 지적 토대라는 점에서 집중 조명을 받아왔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또, 이 글은 유서 지식의 주제별 내용 검토에 이르지 못하고, 학문방법론 수준의 몇 가지 용어・개념에 착안하여 논의를 진행한다. 글의 분량 때문이기도 하지만, 유서 지식의 성격을 지식사적 관점 차원에서 검토해 보려는 이 글의 의도와 잘 부합하기 때문이다.

2. 유서의 성격과 범위

근래에 유서의 내용 분석과 더불어 문체론적 검토가 진행되면서 유서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제기되고 있다. 안대회는 "雜家는 한 개인으로부터 나온 것이요, 類書는 많은 전적을 겸하고 모은 것"이라는 焦竑의 규정에 따라 『지봉유설』을 잡가와 유서의 성격을 함께 갖춘 저작이라고 보았다.[5] 그리고 김채식은 『지봉유설』, 『계곡만필』, 『성호사설』, 『청장관전서』, 『오주산고』 등을 '箚記體 筆記'에 속하는 것으로 보면서,[6] 『오주산고』를 특별히 박물고증서 또는 명물고증서로 규정하기도 하였다. 최근에 심경호는 유서를 "分門과 連環을 중시하면서 사물을 분류하고 어휘를 계열화한 저작"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오주산고』는 물론 『성호사설』 조차도 유서가 아니라 '雜考의 筆記・漫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7]

---

5) 안대회, 「이수광의 『지봉유설』과 조선 후기 명물고증학의 전통」, 『진단학보』 제98호, 진단학회, 2004, 271면.

6) 김채식, 「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산고』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08, 81면. 그는 같은 글에서 『오주산고』를 유서로 호명하기도 하는데, 이로 볼 때 그의 '박물・명물고증서'는 '유서'와 상호 배타적인 개념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7) 심경호, 「성호의 僿說과 지식 구축 방식(1)」, 『민족문화』 제49호, 한국고전번역원, 2017, 152면. 그러나 그는 연속된 논문에서 『성호사설』이 載文이 아니라 考辯을 중심에 둔 잡고에 속한다는 주장을 이어가면서도, 광의의 유서에는 속한다고 언급을 추가하였다. 심경호, 「성호의 僿說과 지식 구축 방식(2)」, 『민족문화』 제50호, 한국고전번역원, 2017, 292면.

이런 주장들은 대체로 유서의 명칭 자체에 주목하여 지식의 분류를 유서의 핵심적인 요소로 간주하는 경향을 보인다.[8] 이때 지식의 분류를 상징적으로 대변하는 것이 바로 분류체계이다. 분류체계의 존재야말로 "복잡하고 착종한 지식을 체계화시키고 질서화함으로써 읽고 인식하는 데 편리하게 만든 것"[9]이라는 유서 규정에 잘 부합한다. 이런 측면에서 조선시대 백과사전류 저작 가운데 일부를 유서의 범위에서 제외하자는 주장도 일리가 없지 않다. 특히 『오주산고』의 경우는 1977년에야 비로소 『성호사설유선』의 예에 따라 항목 분류가 추가된 것일 뿐, 본래 분류체계가 존재하지 않았고, 애초부터 그것을 구상한 흔적조차 분명치 않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과연 이 점 때문에 『지봉유설』에서 『오주산고』에 이르는 백과사전류 저술을 유서로 통칭하는 것이 불가능한가? 우선 유서라는 명칭의 대안을 검토해 보자. 지금까지 잡가・차기・필기・잡고・만록 등 다양한 용어가 유서의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이견이 하나로 수렴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 중에서 필기가 비교적 많이 거론되는 편인데, 필기는 통상적으로 한문 산문의 여러 문체 가운데 하나로 인정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특별한 격식 없이 붓 가는 대로 기록한 것"이라는 규정에서 볼 수 있듯이,[10] 敍事・傳記・遊記・書信・序跋 등의 특정 형식을 갖추지 않은 '기타 문체'라는 성격이 강하다. 이 필기 개념은 『오주산고』 등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의의가 없지는 않지만, 그 틀이 지나치게 넓고 느슨하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차기체 필기'나 '잡고의 필기'처럼 두 용어를 결합하여 규정하는 방식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다. 『지봉유설』을 유서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지봉유설』을 유서로 인정할 경우, 과연 『성호사설』과 『오주산고』

8) 진재교는 「조선조 후기 유서와 인물지의 학적 시야—지식・정보의 집적과 분류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제101집,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8에서 조선후기의 대표적인 유서로 『芝峯類說』, 『類苑叢寶』, 『星湖僿說』, 『攷事新書』, 『林園經濟志』, 『松南雜識』, 『林下筆記』를 거론하는데, 모두 항목 분류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9) 陳元龍, 「範例」, 『格致鏡原』; 안대회, 앞의 글, 272면에서 재인용.

10) 陳必祥, 심경호 옮김, 『한문문체론』, 이회, 1995, 130면.

는 그것과 문체상에서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는가? 또, 『오주산고』에 분류체계를 추가한 이후, 그 저작은 문체상에서 본질적인 변화가 있다고 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은 그동안의 유의미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유서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 탄력적인 이해가 필요함을 웅변한다. 『성호사설』의 편찬과 관련한 이익의 다음 술회는 그 모색을 위한 단서로써 음미해 볼 여지가 있다.

> 독서하는 여가에 세상살이하면서 傳記・子集・詩家・詼諧에서 얻은 것 중에 웃고 즐길 만하거나 두고 열람할 만한 것들을 붓 가는 대로 적어두었는데, 모르는 새에 그것이 많이 쌓였다. 처음에는 잊지 않기 위해 기록해 둔 것인데 卷이 이루어져 제목을 붙이고, 항목으로 나열하고[列於端目], 또 두루 열람하기 어려워 부문별로 나누어 넣으니[分門類入] 드디어 卷帙이 이루어졌다.11)

이익은 여기에서 유서를 정의하거나 『성호사설』의 저술 성격을 엄밀하게 규정하려고 시도하지 않았다. 겸양의 표현을 섞어가며, 그것이 사전의 기획 없이 우연적으로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은 통상적으로 거론되는 유서의 성격과 관련하여 몇 가지 의미 있는 표현들을 담고 있다. 우리는 그 표현들을 단서로 삼고 유서의 다양한 유형들을 고려하면서 유서의 문체 특징을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유서는 지식의 匯集을 우선적인 특징으로 삼는다. 이익은 인용문에서 傳記・子集・詩家・詼諧에서 기사를 모았다고 하고, 이어서 성현의 말씀이나 자신의 序・記・論・說 등에 실을 수 없는 것만을 따로 담은 것이라는 말을 추가하기도 했지만, 실제 『성호사설』에는 경전과 사서에서 인용한 글귀 역시 다수 존재한다. 『성호사설』을 포함한 대부분의 유서는 원칙적으로 경사자집 등 모든 문헌을 발췌와 전재의 대상으로 삼는다. 유서의 전형이 확립된 송대 이후, 앞선 시대의 유서가 중요한 지적 원천이 된 점은 특기할 만하다. 어쨌

11) 李瀷, 「自序」, 『星湖僿說』. "讀書之暇, 應世循俗, 或得之傳記, 得之子集, 得之詩家, 得之傳聞, 得之詼諧, 或可笑可喜可以存閱, 隨手亂錄, 不覺其至於多積. 始也, 爲其排忘錄之, 卷旣又爲之目, 列於端目, 又不可以徧閱, 乃分門類入, 遂成卷帙."

든 편찬자의 관심이나 조건에 따라 대상 문헌의 범위가 제한될 수 있지만, 유서의 개념 자체에서 그 제한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유서는 전통 지식의 회집이라는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당대의 새로운 지식·정보를 수집·정리하는 데 치중하는 근대 이후의 백과사전과 차이가 있다.[12]

둘째, 유서는 지식의 항목화를 중요한 방법으로 삼는다. 위 인용문에서 '항목으로 나열'했다는 표현은 해석에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지만, 구절이나 문장 단위의 지식을 항목별도 취합했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유서는 이런 항목을 기본 단위로 삼는다. 이 점에서 그것은 과거의 문헌을 모아서 통째로 편집하는 叢書와 다르다. 그리고 동일 유서 안의 항목들이 비교적 통일된 형식을 갖추고, 대체로 주변 항목들과의 논리적 연관이나 위계가 약하다는 점에서 다른 논저의 장·절 구분과 차이가 있다. 그러나 항목의 형식은 유서마다, 그리고 같은 유서 안에서도 항목별로 차이가 있기 쉬운데, 이런 점에서 일정한 편찬 규칙으로 엄격하게 통제되는 근대 백과사전과 차이가 있다. 항목의 규모 면에서도 유서는 비교적 자유로운 편인데, 『지봉유설』 文章部의 '東詩' 항목은 심지어 한 권(권13) 전체를 차지할 정도로 분량이 많다.

셋째, 유서는 지식의 분류를 또 하나의 중요한 방법으로 삼는다. 원칙적으로 유서 편찬에서 분류는 두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먼저 원본 지식을 항목화하는 과정에서 지식의 항목별 분류가 진행되고, 다음으로 그 항목들을 일정한 체계에 따라 배열하는 과정에서 항목의 분류가 이루어진다.[13] 따라서 항목의 분류체계는 유서의 명칭에서 기원하는 필수불가결의

---

12) 유서와 근대 백과사전의 근본적인 차이는 지식의 팽창에 대응하는 방법 즉 회집에 있다기보다 그 지식의 내용 또는 출처에 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른다. 다음의 두 글은 이 점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점이 있다. "『백과전서』는 독창적인 저서일 수 없다. 참신하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인간의 모든 지식을 집대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편집자들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전 원전들을 참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그림과 마찬가지로 본문을 베끼는 것은 당시 흔한 관행이었다." 마들렌 피노, 이은주 옮김, 『백과전서』, 한길사, 1999, 63면. "근대 초기 유럽인들이 다른 대륙에서 모은 지식도 언제나 자연과 사회를 직접 관찰해서 얻은 결과는 아니었으며, 현지 정보 제공자들에게 의존해 얻은 것이기도 했다." 피터 버크, 앞의 책, 30면.

13) 오영균은 유서 편찬의 두 목적이 지식의 모음과 나눔에 있다고 하였다. 「중국 유서의 전통과 『운부군옥』이라는 책의 역사」, 『조선의 백과지식—『대동운부군옥』으로 보는 조선시대 책의 문화사』, 옥영정 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107면. 필자는 이때의 '모음'을 집필 이전에 자료를 수집하고

요소라고 하기 어렵다.[14] 물론 위 이익의 언급에서 엿볼 수 있듯이, 분류체계에 따른 항목의 분류가 지식의 검색과 열람에 편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의가 있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분류체계는 대체로 주제 분류 형식을 띠는데, 만물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 유서의 경우 천・지・인・물 식의 분류를 원용한 것이 많지만 결코 지배적이라 하기는 어렵다. 주목할 만한 것은 16세기의 『대동운부군옥』이 韻字를 기준으로 용어를 분류・배열하고 주제 분류를 각 운자 분류의 하위에 보조적으로만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운자 분류는 한자의 표의적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서 18세기 이후 유럽에서 확산된 알파벳 분류와 비교해 볼 만하다.

넷째, 유서는 지식에 대한 변증을 포함한다. 이익의 언급에서는 누락되었지만, 방대한 규모의 지식을 수집・정리하는 편찬 작업에서 편찬자의 지적 개입을 간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유서 편찬자들은 자신의 관점과 의도에 따라 자료를 취사선택하고 배열할 뿐 아니라, 많은 경우에 자신의 관점과 견해를 직간접적으로 드러내기도 하였다. 이에 활용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지식의 진위와 유・무용 등을 가리는 변증이다. 그것은 유서가 한결같이 전통 지식의 회집과 분류에 기초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특성을 갖추고, 나아가 지식사적 탐구의 중요한 대상일 수 있게 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이다. 1,417개 모든 항목명에 '변증설'을 덧붙인 『오주산고』는 이 점에서 매우 특별한 면이 있는 것이다.

유서는 위의 특징들을 부분적으로 공유하면서 유서로서의 '가족유사성'을 가진다. 네 특징 가운데 일부가 어떤 유서에 약하게 나타나거나 심지어 결여되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그것을 유서에서 배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저작의 유서 여부를 판별하는 일에는 그 내적 조건에 해당하는 위의 특징들과 더불어, 유서를 대신할 문체 범주의 적절성, 전후 혹은 좌우 유서들과의 지식사적 연계성 등 외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집필 이후에 항목을 수합하는 것 두 단계로, 그리고 '나눔'을 지식의 항목별 분류와 항목의 분류체계 분류 두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14) 여기에 『지봉유설』과 『성호사설』을 포함하여 조선시대의 유서류 저작 다수가 1단계 분류체계만을 적용하고 있는 등, 대체로 분류에 취약하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 검토 대상으로 삼는 『지봉유설』, 『성호사설』, 『오주산고』는 유서로서의 내적 조건뿐 아니라 상호 지식사적 연계성 역시 비교적 강하게 띠고 있는 저작들이었다.[15]

유서의 문체적 특징 네 가지는 조선후기 유서에 한정된 것이기보다 한자 문화권의 유서가 대체로 공유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른 지역의 유서와 비교할 때 조선후기 유서의 특징은 문체적 성격보다 편찬 주체나 규모, 유통의 방식 등에서 두드러졌다. 조선에는 중국과 달리 관찬 유서의 전통이 약했고, 따라서 규모 면에서 방대함이 덜한 것이 특징의 하나이다. 『지봉유설』 20권, 『성호사설』 30권, 『오주산고』 60권의 규모는 중국에서 관찬 유서가 수백 권에서 만여 권을 오르내리고, 사찬의 경우도 100권을 넘는 것이 제법 출현했던 사실과 비교된다.[16] 그런가 하면 중국에서는 명대 이래로 출판물 시장이 활성화되어 유서의 편찬과 간행에 영향을 미쳤고, 일본에서는 18세기에 『和漢三才圖繪』가 애초부터 시장 유통을 겨냥하여 출판된 사례의 하나로 알려진다. 이에 비해 조선에서는 『지봉유설』이 당대에 목판으로 간행되었을 뿐, 『성호사설』은 20세기에 이르기 전까지 필사본으로 유통되는 데 그쳤고, 『오주산고』는 필사본의 유통마저 흔적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점은 유서의 문제를 넘어 조선후기 지식사에 대한 거시적인 시각 조정과 관련하여 유념할 사항이 아닐 수 없다.

---

15) 조선후기 유서들 사이의 순차적 인용 양상은 그것들의 지식사적 연계성을 이해하는 데 참고할 만하다. 선행 연구에 따르자면, 『성호사설』이 『지봉유설』을 언급한 회수는 7회에 불과하지만, 19세기 趙在三의 『송남잡지』는 『지봉유설』을 321차례, 『성호사설』을 48차례 인용하였다. 강민구, 「『성호사설』의 『지봉유설』, 『송남잡지』의 『지봉유설』·『성호사설』 인용 양상에 대한 연구」, 『한문학보』 제24호, 우리한문학회, 2011, 496면. 반면, 『오주산고』는 『지봉유설』을 61회, 『성호사설』을 103회 인용하고 있다. 김채식, 앞의 글, 142면. 『성호사설』이 『지봉유설』을 언급한 7회마저도 다수가 비판적 입장에서 행해진 것임을 감안하자면 양자의 지식사적 관계는 순접보다 역접의 성격이 짙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조선후기 유서들 사이의 지식사적 연계성은 19세기의 두 유서를 통해 대폭 강화된 것이 아닐까 한다.

16) 중국의 관찬 유서는 당대의 『藝文類聚』 100권을 시작으로 송대의 『太平廣記』 500권과 『太平御覽』 1,000권, 『冊府元龜』 1,000권, 명대의 『永樂大全』 22,877권과 청대의 『古今圖書集成』 1만 권 등이 대표적이다. 이것들은 동아시아 유서 전통 내부의 중국적 특징일 뿐 아니라, 유럽의 경우와 비교해 중국 학술의 특수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비춰지기도 한다. 사찬 유서 중에도 唐代 虞世南의 『北堂書鈔』 173권, 송대 章俊卿의 『山堂考索』 212권, 명대 章潢의 『圖書編』 127권, 청대 陳元龍의 『格致鏡原』 100권 등은 비교적 거질에 해당한다. 劉葉秋, 金長煥 옮김, 『中國類書槪說』, 학고방, 2005 참조.

3. 박학에서 박물로: 지식의 확장

다른 유형의 저작과 비교할 때 유서에서 두드러지는 점은 무엇보다 그 지식의 분량과 범위가 크고 넓다는 것이다. 『지봉유설』은 26만 자, 182항목의 지식을 25개의 部로 분류하여 실었으며, 그 안에는 6경으로부터 소설집에 이르기까지 348종의 서적이 인용되고, 2,265명의 인물명이 수록되었다.[17] 『성호사설』에는 90만 자, 3,013항목이 천지・만물・인사・경사・시문 등의 5문으로 분류되어 실린 반면, 『오주산고』는 150만 자, 1,416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금은 5편의 대분류 아래 중분류・소분류의 3단 분류가 적용되어 있다. 『오주산고』는 항목 수가 『성호사설』에 비해 줄었지만 항목의 평균 규모가 300자 전후에서 1,100자 전후로 확대되었다.

또, 『성호사설』의 인용 서목은 집계되지 않고 있으나, 『오주산고』의 경우 대략 660여 종의 한국・중국・일본 서적을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8] 여기서 주목할 것은 李德懋(1741-1793)의 『靑莊館全書』, 方以智(1611-1671)의 『物理小識』와 顧炎武(1613-1682)의 『日知錄』, 테라지마 료안(寺島良安, 1654-?)의 『和漢三才圖會』 등, 『오주산고』에서 최고 수준의 인용 빈도를 보이는 17세기 이후의 국내외 서적들이 『지봉유설』은 물론이고 『성호사설』에도 출현하지 않던 것이라는 점이다. 이로써 우리는 『지봉유설』에서 『성호사설』, 『오주산고』로 차차 지식의 분량과 범위가 확대되어 간 사정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지식의 확장은 서적의 종류나 수효 등 몇 가지 외부적 지표의 변화만으로는 온전히 설명되기 어렵다. 학문과 지식에 대한 편찬자의 관점과 태도 역시 지식 확장 과정의 중요한 요인이자 효과로서 고려되어야 한다. 박

17) 이수광은 「범례」에서 『지봉유설』이 3,435조로 구성되어 있다고 밝혔는데, 이것은 항목(표제어)의 개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항목 하위에 '目' 등을 통해 인용된 개별 지식의 수효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18) 김채식, 「『성호사설』과 『오주연문장전산고』의 저술성향 비교검토」, 『동아시아고대학』 제26집, 동아시아고대학회, 2011, 69-70면. 김채식에 따르자면, 『오주산고』는 『성호사설』보다 천지편(전체의 8%→17%)과 인사편(35%→43%)의 비중이 높아졌고, 경사편(37%→27%)과 시문편(8%→3%)에서 낮아졌다. 이 가운데 인사편의 비중이 높아진 이유는 주로 복식・기용・기예류의 비중이 늘어난 데 있다.

학의 문제는 그 핵심적 사안에 해당한다. 박학에 관한 유학자들의 논의는 전통적으로 『논어』·『맹자』·『중용』 등의 관련 언급을 바탕으로 진행되어 왔다. 거기에서 특징적인 점은 박학을 그 자체만으로 논하지 않고 한결같이 다른 어떤 것과 대비·연결시키고 있다는 데 있다. 『논어』에서는 박학을 約禮와, 『맹자』에서는 反約과, 그리고 『중용』에서는 審問·愼思·明辨·篤行과 대비하고 연결한다. 박학의 의의를 부정하지 않되, 그것이 반드시 약례·반약·독행 등으로 연결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주희는 『사서집주』에서 박학에 대한 이러한 해석을 분명히 했고,[19] 이황과 이이를 비롯한 조선전기 학자들 역시 대체로 그 해석을 부연하는 데 집중해 왔다.

제1장의 인용문에서 본 것처럼, 『지봉유설』에서는 박학이 위기지학과 대척 관계에 있지 않음을 강조하였다. 그것은 논리적으로 『사서집주』의 해석 틀을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박학을 경계하기보다 권장하는 입장에 섰다는 점에서 분명 주목할 만한 것이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런 입장이 이수광 본인에게서 일관되지 않고 있었다는 점이다. 『유설』과 별도로 그의 문집 『芝峯集』에 박학에 관한 언급이 몇 차례 더 등장하는데, 다음은 그 가운데 하나이다.

> 先正이 이렇게 말했다. "학문은 넓어지려고 하되 잡되려고 하지 않으며, 지키고자 하는 것은 요점이지 누추함이 아니다." 나는 넓음은 잡됨으로 흐르기 쉽고, 요점적인 것은 누추함으로 귀착되기 쉽다고 생각한다. 잡된 것은 넓다고 할 수 없고, 누추한 것은 요점적이라 할 수 없으니, 배우는 사람이 잘 살펴야 하는 것이다.[20]

이 글의 요점은, 박학은 잡학으로 흐르기 쉽다는 것이다. 박학을 권장하기보다 경계하는 입장이다. 『지봉집』의 나머지 언급 역시 이러한 관점과 입장에 준

19) 朱熹, 「雍也」, 『論語集注』. "子曰, 君子博學於文, 約之以禮, 亦可以弗畔矣夫! [君子學欲其博, 故於文無不考, 守欲其要, 故其動必以禮. 如此, 則可以不背於道矣.]"; 朱熹, 「離婁下」, 『孟子集注』. "博學而詳說之, 將以反說約也. [言所以博學於文, 而詳說其理者, 非欲以誇多而鬪靡也. 欲其融會貫通, 有以反而說到至約之地耳. 蓋承上章之意而言, 學非欲其徒博, 而亦不可以徑約也.]"; 朱熹, 『中庸章句』 제20장. "博學之, 審問之, 愼思之, 明辨之, 篤行之. [此誠之之目也. 學問思辨, 所以擇善而爲知, 學而知也. 篤行, 所以固執而爲仁, 利而行也.]"

20) 李睟光, 「秉燭雜記」, 『芝峯集』 권27. "先正曰學欲博, 不欲雜, 守欲約, 不欲陋. 愚謂博者易流於雜, 約者易歸於陋, 雜則不可謂博, 陋則不可謂約, 學者所當致察也."

하고,[21] 『유설』의 관점은 『지봉집』에 다시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유설』을 전후로 박학에 관한 그의 관점은 변화한 것인가? 『유설』은 그가 52세에 탈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지봉집』의 다른 언급들은 시기를 확정할 수 없고, 따라서 관점 변화의 방향을 논하기도 어렵다. 아니, 어느 방향으로든 박학에 관한 그의 관점은 과연 변화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윗글에서 언급한 '선정'은 湖湘學派의 한 사람인 胡宏(1106-1161)을 가리킨다. 그의 『知言』에 위에 인용한 문장이 실려 있는데,[22] 그것은 주희를 포함한 여러 학자들에 의해 긍정적으로 인용되고, 후에 『성리대전』에 채록됨으로써 조선의 학자들, 특히 조선후기 학자들에게서도 심심치 않게 재인용되어 오던 것이다. 요컨대 주희의 해석과 호굉의 주장은 서로 갈등하지 않고 공존하던 것이었다. 결국 『유설』의 관점도 호굉이나 『지봉집』의 관점도 최소한 논리적으로는 주희의 해석 체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었다. 박학에 관한 『유설』과 『지봉집』 양자의 관점 차이는 저술 상황에 따른 강조점의 차이에 해당하고, 따라서 양자 사이에 학문관의 본질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확대 해석하는 것은 설득력이 커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논의는 『지봉유설』을 비롯한 조선후기 유서의 성격을 좀 더 넓은 해석의 지평으로 끌어들이려는 우리의 시도와 관련이 있다. 박학의 문제는 결국 유교적·주자학적 학문관의 기초 위에서 형성된 것이었다. 그 학문관에서 좀 더 근본적인 문제는 지행의 문제였고, 박학의 문제는 지행의 문제와 결합되어 있었다. 『지봉유설』의 다음 언급은 그의 박학 논의의 진폭을 가늠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 내가 어렸을 때 선생님과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학문하는 방법은 오직 知行 두 글자에 있다는 것이었다. 『대학』의 격물·치지는 앎을 추구하는 것이고, 誠意 이상은 행동의 조목들이다. 『중용』에서 말하는 博學·審問·愼思·明辨 네 가지는 앎의 방법이고, 篤行은 행동의 방법이다. 성현이 사람들을 가르

21) 李睟光, 「采薪雜錄」, 『芝峯集』 권24. "學不貴博, 而貴於不雜."; 「警語雜編」, 『芝峯集』 권29. "學不必博, 博則易雜, 言不須多, 多則易厭."

22) 胡宏, 『知言』 2장. "學欲博, 不欲雜, 守欲約, 不欲陋. 雜似博, 陋似約, 學者不可不察也."

> 칠 때 천 가지, 만 가지 말을 했지만 그 요체는 이것을 벗어나지 않았다. 陳眞晟은 "사람들이 학문을 할 때 만약 참되게 안다면[眞知] 행동은 그 안에 있다."고 하였다. 내 생각에, 배움에서는 앎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참되게 아는 것이 어렵고, 행동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참되게 행하는 것[實踐]이 어려운 것이다.[23] 알면서도 행동하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24]

이 글은 이수광이 「학문」 항목에서 제가의 설을 발췌·인용한 후 마지막에 자신의 말로 덧붙인 것이다. 그는 『대학』·『중용』과 명대 인물인 진진성(1410-1473)의 말을 인용하여 지식이 실천과 결합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眞知라는 용어는 특별히 주목할 만하다. 진지는 주자학자들도 자주 거론하던 것이지만, 그것을 실천과 직접 결부하는 논법은 양명학을 쉽게 연상시킨다. 왕수인의 『전습록』에는 "진지가 곧 실천(眞知卽是行矣.)"이라거나 "진지가 곧 실천의 방법(眞知卽所以爲行)"이라는 등의 언급이 반복적으로 출현한다. 그러나 이수광이 인용한 진진성은 왕수인 이전의 인물이고,[25] 그의 진지 논의는 주자학적 지행론의 자연스러운 귀결이라고 해도 안 될 것이 없다. 진지는 지식이 실천을 지향하고 실천의 제약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의 연장인 것이다.

『지봉유설』은 당시 지식이 확장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임에 틀림이 없지만, 지식에 대한 관점은 아직 주자학의 실천 제약적 관점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점은 이익의 『성호사설』에서도 본질적인 변화 없이 유지되었다.

『성호사설』에는 박학을 긍정하는 직접적인 언급이 등장하지 않는다. 반대

---

23) 익명의 논문 심사자가 제안한 대로, 앞의 '眞知=참되게 아는 것'과 호응하도록 원문의 '實踐'을 '참되게 행하는 것'으로 풀이한다. 그리고 뒤의 본문에서는 특별히 구별할 필요가 없는 한, 원문의 '行'을 현대어의 어감에 따라 '실천'으로 풀어 사용한다.

24) 李睟光, 「學問」, 『芝峯類說』 권5. "余在童丱, 及聞先生長者之餘論, 以謂爲學之方, 惟在知行二字. 大學之格物致知, 求所以知之也, 誠意以上, 卽所以行之之目也. 至於中庸所謂博學審問愼思明辨四者, 所以知之也, 篤行者, 所以行之也. 聖賢教人, 雖千言萬語, 其要不過出此. 陳眞晟曰, 人於此學, 若眞知之, 則行在其中矣. 余謂學者非知之難, 眞知爲難, 非行之難, 實踐爲難. 其或知之而不能行者, 由不能眞知故也."

25) 陳眞晟에 관해서는 『明儒學案』과 『明儒言行錄』 등에 기사가 실려 있다. 그는 특별한 사승이 없었고, 『程朱正學纂要』·『心學圖』 등의 저술을 남겼다.

로 이익은 다음과 같은 班固의 말을 인용하였다. "[前漢 말기에] 박학하는 자들이 '많이 들어서 의심스러운 것이 없게 하라.'는 본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자잘한 뜻에 힘써서 남의 힐난이나 피하며, 견강부회와 아첨하는 말로 문자의 형체를 파괴하여 다섯 글자를 설명하는 글이 2-3만 자에 이르기도 했다." 이익은 한대의 이런 현상을 두고 "학문이 천박하고 쓸데없이 번잡해졌다."고 평하였다.[26] 또 『중용』의 '존덕성·도문학' 장을 설명하면서, "박학하면 차고 넘쳐서 자세히 살필 수 없고, 아주 고명하면 지나치게 높아서 중용을 잃을까 한다."고 덧붙이기도 하였다. 그는 「유학」 항목에서, "내 생각에, 알려고 하는 것은 장차 행하려고 하는 것이고, 행해야 할 것 중에 효도보다 먼저 할 일은 없다."[27]고 단언하였는데, 이러한 지행관이 한편에서 그의 박학관을 구속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박학과 관련하여 관점의 전환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오주산고』에 와서이다. 「博學多識辨證說」은 다른 항목에 비해 분량이 매우 적고, 그나마 첫 문장을 제외하면 모두 다른 서적에서 옮겨온 것에 불과하지만 그 주장만큼은 분명하다.

> 박학다식은 군자가 명심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주역』에서는 '군자는 옛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많이 알아야 한다.'고 하였으며, 『예기』의 「곡례」 편에서는 '널리 듣고 잘 기억하는 사람을 군자라 한다.'고 하고, 「유행」 편에서는 '유자는 박학에 그침이 없어야 한다.'고 하고, 「내칙」 편에서는 '박학에 끝이 없다.'고 하였다. (…) 程顥(明道)가 謝良佐(懸道)에게 말하기를, '어질기는 하지만 너무 많은 것을 기억하고 있어 玩物喪志라 할 만하다.'고 하였는데, 옥에 티와 같은 말이다." 이것은 咸寧 사람 胡侍[奉之]의 『眞珠船』에 실려 있는 것이다.[28]

---

26) 李瀷, 「拳近君」, 『星湖僿說』 권9. "班固藝文志, 後世經傳, 既已乖離, 博學者, 又不思多聞闕疑之義, 而務碎義逃難, 便辭阿說, 破壞形體, 說五字之文, 至於二三萬言. (…) 所謂五字, 不知何指, 西京之末, 士學之淺末, 煩冗已至於此也."

27) 李瀷, 「儒學」, 『星湖僿說』 권19. "余謂知者, 將欲行之也. 行莫先於孝."

28) 李圭景, 「博學多識辨證說」, 『五洲衍文長箋散稿』. "博學多識, 卽君子所宜銘念不諼者也. 易云, 君子多識前言往行. 曲禮 云, 博聞强識, 謂之君子. 儒行云, 儒有博學而不窮. 內則云, 博學無方. (…) 程明道乃謂謝顯道云, '賢, 却記許多, 可謂玩物喪志', 蓋斯言之玷也. 此咸寧胡侍眞珠船所載者也."

이규경 본인의 뜻을 담은 첫 문장에서 박학은 어떤 조건이나 제한도 없이 긍정적인 것으로 천명된다. 이는 『지봉유설』과 『성호사설』을 포함하여 조선의 다른 어떤 저작에서도 발견하기 힘든 단호한 주장이다. 여기서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박물지 『진주선』에서 재인용한 경전의 예문들이 한결같이 문장의 뒤 구절을 생략한 채 앞 구절만 따온 것이라는 점이다. 각각의 예문에서 박학은 본래 '덕을 기르는 것(畜德)', '선을 돈독히 실천하는 것(敦善)', '행실을 독실하게 하는 것(篤行)', '친구를 공손히 대하는 것(孫友)'과 대비・연결되어 있는 것이었다.[29] 이규경은 이런 식의 단장취의를 통해 박학론을 종래의 지행론적 구속에서 해방하는 길을 찾은 셈이다. 그리고 그는 「格物辨證說」, 「朱子晩年定論辨證說」 등을 통해 주희 등의 주요 지행론을 소개・검토하면서도 특별히 그것에 동조하는 언급을 남기지 않았다. 그 스스로 의식을 했든 안 했든, 이 점 역시 그의 박학 지향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전통적인 지행론으로부터의 탈피나 거리 두기가 박학에 대한 긍적적인 관점을 강화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다지 합리적이지 않다. 굳이 양자 사이의 선후 관계를 따지자면 오히려 박학의 강화를 지행론의 변화보다 앞세우는 것이 설득력이 더 커 보인다. 박학은 학문 전반의 도도한 변화 물결을 따라 강화되어 갔던 것으로서 지행 외에도 다양한 용어와 개념을 새롭게 동반하고 있었다.

> "내 습성은 독서할 때마다 반드시 名物을 상세히 하여 본원을 끝까지 탐구한 후에야 그치는 것이다. 만약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자나 깨나 제쳐두지 못하고 반드시 알아내고자 하니, 이것이 혹 格物의 일단일까? 일찍이 책에서 아라비아[大食]의 그릇 琺瑯器를 본 적이 있는데, 무슨 물건인지 분명치가 않아 여러 책을 두루 살펴 비로소 그 原委를 깨달았으니, 또한 格物・博物의 고질병이라고 할 수 있을진저!"[30]

---

29) 『周易』 大畜. "象曰 天在山中, 大畜, 君子以, 多識前言往行, 以畜其德."; 『禮記』 曲禮. "博聞强識而讓, 敦善行而不怠, 謂之君子."; 『禮記』 儒行. "儒有博學而不窮, 篤行而不倦."; 『禮記』 內則. "三十而有室, 始理男事, 博學無方, 孫友視志."

30) 李圭景, 「大食窯琺瑯器辨證說」, 『五洲衍文長箋散稿』. "余之習性, 每於讀書, 必詳其名物, 究極本原, 然後乃已. 若未達, 則寤寐不置, 期於必知, 是或格物之一端耶? 嘗見大食窯琺瑯器於一書, 而未詳其何物, 遍考群

여기에서 명물·격물·박물은 박학에 상응하는 수준의 학문방법론적 용어에 해당한다. 이것들은 전적으로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오주산고』에서 박학과 함께 또는 박학을 대신하면서 상호 긴밀한 의미 연관을 맺었다. 이런 양상은 궁극적으로 종래의 박학론에 균열을 가할 만한 것이었다.

세 용어 가운데 일단 '박물'에 주목해 보자. 박물이라는 용어는 西晉의 張華가 지은 『博物志』와 더불어 유행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박물지』는 책의 편제상 유서에 가깝지만, 지역·물류·인물·관습 등 여러 방면에 걸쳐 합리·불합리를 가리지 않고 지식을 망라했다는 점, 따라서 상대적으로 신비하고 기이한 지식·정보를 많이 싣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점은 남송대 李石의 『續博物志』와 명대 董斯張의 『廣博物志』로 이어지면서 이른바 박물학 전통을 형성하였다. 이런 의미의 박물학은 박학론에 비해 도덕과의 긴장이 느슨하고, 나아가 단순한 지적 호기심이나 물질적 욕구에 좀 더 개방적인 면모를 띠었다.

『지봉유설』은 『박물지』와 『속박물지』를 21개 항목에서 인용하였고, 『성호사설』은 두 책을 4개 항목에 걸쳐 인용하면서 博物者라는 용어도 몇 차례 사용하였다. 그러나 두 유서에서 박물이나 박물학을 학문방법론 차원에서 의미 있게 거론한 대목은 발견되지 않는다. 반면에 『오주산고』는 『박물지』·『속박물지』와 함께 명대 董斯張의 『廣博物志』도 여러 차례 인용하고, 박물뿐 아니라 博物之學이라는 용어까지 동원하여 학문적 지향을 드러내는 데 활용하였다. 일례로, 그는 조선의 학자들이 중원의 학자들과 달리 "박물지학(=格物之學)을 저버려 콩과 보리도 구분할 줄 모르면서 망령되이 天人에 통달했다고 자부한다."고 개탄하였다.[31]

『오주산고』에서 박물을 중시했다는 사실은 지식의 문제와 관련하여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주지하듯이 유학 내지 성리학의 지식론에서 실용성은 진리성과 함께 중요한 가치였다. 그리고 이미 박학은 지식에 요청되는 실용성의

書, 始得其原委, 亦可謂格物博物之癖也歟!"

31) 李圭景, 「松脂乳香辨證說」, 『五洲衍文長箋散稿』. "蓋歎中原文人, 不遺博物之學也, 我人則自稱操觚, 竝棄格物之學, 以至菽麥之不辨, 而妄自稱學達天人. 吁, 是爲何學也!"

중심 범위를 心術에서 經世로 이동시키는 효과를 낳고 있었다. 유서에 심술 내지 성리학과 직접 관련된 개념의 출현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 그 증거의 하나이다. 『지봉유설』·『성호사설』·『오주산고』 각각의 본문에서 五常·道心·四端·心學·道統 등이 출현하는 곳은 10항목을 넘지 않고, 예외적으로 太極이 『성호사설』에서 10여 항목, 『오주산고』에서 30여 항목에 등장하기는 하지만 성리학자들의 관심에 비하자면 특별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물은 지식의 범위를 한 번 더 확장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특히 주목할 것은 그 확장이 기괴하고 신이한 것을 포괄하는 방향으로도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 나는 기이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好奇之士]이 아니지만 기괴하고 신이한 것을 보면 반드시 기록해 보관하였다. 그러므로 나를 모르는 사람들은 간혹 내가 기이한 것을 좋아한다고 의심하나, 사실은 기이한 것을 좋아하는 고인들의 자취를 모아 두었다가 훗날 기이한 것을 물어오는 사람에게 대답할 자료로 쓰려는 것이다. 『五雜組』에는 용이 아홉 아들을 낳았다는 설이 있고, 아홉 아들 이외에 또 알이 두 개 있다는 글도 있다. (…) 내가 일찍이 「虎胎說」을 지었는데, 호랑이 뱃속에 태가 널려있는 것을 또렷이 보았으니 어찌 한 번 변증해 볼 만한 것이 아니겠는가![32]

실용성의 기준을 경세 여부에 둔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의 진폭은 상당히 크기 마련이다. 의도적으로 주제를 제도와 법령 등에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유서 편찬자들은 대체로 일상의 도구나 풍습까지도 경세의 범위 안에 포함하여 수록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그러나 이 인용문에서 말하는 기괴하고 신이한 것은 사정이 다르다. 중국의 유서 가운데 기괴·신이한 것까지 가리지 않고 채록한 것이 많고, 16세기의 『대동운부군옥』 역시 삼국시대의 사적들이 怪誕·無稽하더라도 風敎의 부침을 보여주기 위해 그대로 기록한다고 하였지만,[33] 도덕이나 실천 문제에 좀 더 강하게 긴박되어 있던 『지봉유설』

---

32) 李圭景, 「龍卵虎胎辨證說」, 『五洲衍文長箋散稿』. "予非好奇之士, 而若見事之奇怪神異者, 則必書而藏之. 故不知者, 或疑我爲好奇, 然其實拾古人好奇之餖, 將爲日後問奇者, 酬應之資而已矣. 五雜組有龍生九子之說, 而九子之外, 更有二卵之文. (…) 不佞則嘗作虎胎說, 其駢胎之見昭然, 則此豈非一辨者乎!"

33) 權文海, 「凡例」, 『大東韻府羣玉』. "新羅時多有方言, 雖涉無稽, 亦錄而不刪者, (…) 則亦收錄不遺, 以驗夫

이나 『성호사설』 같은 경우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수광은 『지봉유설』에서 "만약 일이 신이하고 기괴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면 일체 기록하지 않는다."[34]고 선언하기도 하였다.

물론 이규경에게서도 기괴하고 신이한 것은 그의 관심 영역에서 중심이 아니라 가장자리에 위치하는 것이었다. 그의 『五洲書種博物攷辨』은 金屬·寶玉·藥石·膠角類 등의 광산물을 대상으로 하는 본격적인 박물서에 해당하는데, 그는 서문에서 '사물을 무리로 나누고, 일을 종류에 따라 모으는' 대인의 박물학과 '사소하고 기이한 것을 기록하고 말하는' 소인의 박물학을 구별한 바 있다.[35] 경세적이거나 실용적인 것에 대한 우선적인 관심은 그 역시 결코 저버릴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소하고 기이한 것에 대한 탐구 역시, 비록 소인의 박물학이라 할지라도 결코 완전히 부정할 것은 아니었다. 그는 스스로 '대롱 속 벌레의 시야와 귀머거리의 청력'으로 견문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였고, "어떤 세계에 어떤 모양의 기기묘묘한 것들이 있을지 모른다."는 식으로 호기심을 드러내기도 하였다.[36] 스스로 호기지사가 아니라는 변명과는 달리, 그에게서 호기심은 지적 활동을 추동하는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였다.

4. 명물에서 도수로: 지식의 심화

일상적 차원의 지식이 반드시 사실이나 진리임을 미리 전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실행 여부를 떠나 늘 변증의 부담을 안고 있기 마련이다. 유서 편찬자들은 지식을 취사선택하거나 수정·보완하는 과정에서도 나름대로 변증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유서별로 지식의 성격 차이를 빚어낸다. 이

風教之汙隆焉. (…) 三國遺事高麗世係, 事多怪誕, 雖不可盡信. 三國史及高麗本史, 亦收而入之, 故今並錄之."

34) 李睟光, 「序」, 『芝峯類說』. "若事涉神怪者, 一切不錄."

35) 李圭景, 「序」, 『五洲書種博物攷辨』. "余唯唯而嘆曰, 夫博物亦有大小焉. 大易之物以羣分, 方以類聚, 大人之博物也. 流俗之識小記異, 語怪談奇, 小人之博物也." 이규경, 최주 註譯, 『오주서종박물고변』, 학연문화사, 2008, 13면 참고.

36) 李圭景, 「物極生變辨證說」, 『五洲衍文長箋散稿』. "此略記余所見聞者而已, 未知何樣神技奇巧之物, 在於甚世界也. 管蠡之見, 聾瞶之聞, 測量物極生變, 而至於其極者, 似不止於如此之極也. 如非無極, 將不知至於何極而乃已也."

규경은 이런 변증의 문제를 특별히 강하게 의식했던 편찬자임에 틀림이 없다. 그가 말하는 변증은 과연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지식의 성격 변화와는 어떻게 관련되었는지가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이다.

> 무릇 사물의 변증이 참된 지식과 적확한 견해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변증한 것은 거리에 나도는 이야기에 지나지 않으므로 군자는 취하지 않는다. 나는 사물에 대하여 옛것을 끌어와 지금 것을 검증함에 매번 그 原委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그러나 들은 것이 적고 본 것이 부족하므로 비록 俚諺이나 野談일지라도 수집하여 나열하지 않음이 없었다. 간혹 한 점의 흔적이라도 엿보면 홀로 기뻐하면서 기재하기를 그치지 않아 전혀 체제를 갖추지 못하였으니, 매양 대가들의 비웃음을 당하면서도 스스로 어쩌지 못했다. 심하다, 변증을 좋아하는 고질병이여![37]

이 글은 짧으나마 변증과 관련한 이규경의 문제의식과 방법론적 의도를 두루 포함하고 있다. 그 핵심은 앞부분의 두 문장에 집약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이 정리·부연할 수 있다. 먼저 그는 변증이 궁극적으로 참된 지식과 적확한 견해의 획득을 목적으로 삼는 것임을 분명히 한다. 이어서, 변증의 기본 방법이 옛것을 원용하여 목전의 대상을 검토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대상마다 그 원위, 즉 각각의 사물을 둘러싼 본말이나 선후의 양상을 밝히는 것이 과제임을 천명한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여기에 있다. 지식의 검증에 왜 굳이 옛것을 원용하는지, 그리고 어떤 것을 이해하는 데 왜 그 기원과 파생 또는 핵심과 주변의 양상을 중시하는지가 다시 의문으로 남는다.

우리는 이 문제가 유교 지식의 오래된 문제에 속하는 것임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이쯤에서 『성호사설』로 다시 돌아가 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 『시경』 읽기의 부수적인 효과는 조수와 초목의 이름을 많이 아는 것인데, 「周南」·「召南」 25편에만 物類의 이름이 42종에 이른다. (…) 사람이 어찌 그것들

37) 李圭景, 「燕衙石辨證說」, 『五洲衍文長箋散稿』. "凡事物之辨證者, 若非眞知的見, 則其所辨者, 無非街譚巷說 故君子不取也. 予於事物, 援古證今, 每欲發明其原委, 所聞者謏, 所見者寡, 故雖俚諺野談, 罔不搜羅. 或有一斑之窺, 則嗳姝之紀載不已, 了無裁度, 每受大方之譏笑, 而不自恤焉. 甚矣, 其好辨之癖也."

> [조수, 초목]을 잊은 채 버려둘 수 있겠는가! 잊지 않으려면 반드시 그 이름을 알아야 하니, 가솔이 비록 많더라도 모두 어루만져 사랑하려면 반드시 먼저 그 이름을 알아야 하는 것과 같다. 『시경』에서 比·興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 사물들 때문이니, 만약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취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내 생각에, 사물이 있으면 규칙[則]이 있고 규칙이 있은 뒤에 이름이 있는 것이니, 아마도 그 형상[象]이 없는데 그 뜻[義]를 취할 수는 없을 것이다. 『시경』에서 먼저 다른 사물을 언급했는데 형상을 얻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필경 요즘 사람들이 충분히 살피지 못해서 그럴 것이다. 어찌 관계없는 사물을 공공연하게 취했겠는가! 만약 그 이름을 알면 그 성품과 기질이 어떠한지 알 것이니, 어찌 『시경』 읽기의 요결이 아니겠는가![38]

『지봉유설』이나 『성호사설』에서는 지식의 변증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을 찾아보기 어렵다. 『성호사설』의 이 인용문은 『시경』을 읽을 때 조수·초목의 이름을 아는 것이 중요함을 역설하는 글이다. 전통적으로 유학자들은 조수·초목 등 사물의 명칭이 많이 등장하는 『시경』에서 박학의 필요성을 발견하고, 나아가 박학을 위한 방법으로 『시경』 공부를 거론하기도 했다. 이 점은 박학을 경계하는 입장에 섰던 학자들도 대체적으로 인정해 오던 것이다. 이익은 그런 전통을 배경으로 삼아, 비(비유)와 흥(다른 사물을 빌려와 시의 발단으로 삼는 것)의 작법으로 지어진 『시경』의 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물의 이름을 많이 알아야 한다고 역설한다. 그리고 사물의 이름을 아는 것이 곧 그것의 성품과 기질을 아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名物學은 명칭을 중심으로 사물을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한대 이래 훈고학의 다른 이름이기도 했다. 이익의 표현을 활용하자면, 명물학은 사물의 규칙과 그 명칭 사이, 사물의 형상과 그 의미 사이의 상관성을 전제로 성립한다. 이에 따를 때 명칭(=의미)에 대한 탐구는 곧 사물의 규칙이나 형상에 대한 탐구, 나아가 사물의 성품과 기질에 대한 탐구를 의미하는 것이 된다. 그런데 후대의 명물학은 주로 『시경』 등 고전에 등장하는 사물 명칭을 훈고의 방

38) 李瀷, 「鳥獸草木名」, 『星湖僿說』 권27. "詩之緖餘, 多識鳥獸草木之名, 故二南二十五篇中, 物類之名, 已四十二種. (…) 人豈可以其踈遠, 而遺忘之哉! 不忘則須識其名, 比如家衆雖多, 撫而愛之, 則必先識其名也. 詩貴比興. 必以其物, 苟不擧名, 何以取? 况余謂有物則有則, 有則而後有名, 恐無無其象而取義. 詩中先言他物, 而無所取象云者, 必以今人之不盡詳也. 夫豈公然攬取不干之物! 若識其名, 知其性氣之如何, 豈非讀詩之要訣耶!"

식으로 해명하고, 그것에 대응하는 현재의 사물을 탐색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졌다.[39] 눈앞 사물의 규칙을 직접 탐구하여 그것에 적합한 명칭을 새롭게 부여하는 작업은 옛 성현의 일이었고, 지금은 그들이 남긴 고전을 올바로 이해하고 원용할 뿐이라는 생각이 또 하나의 암묵적인 전제였던 것이다.

한편, 格物學은 주자학의 성립과 함께 본격화하여 차차 명물학을 대체해 온 학문방법론이다. 격물학은 여전히 독서를 중요한 탐구 방법으로 삼지만, 물명을 매개하지 않고 직접 물리를 거론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었다. 이때의 물리는 개체와 전체를 관통하는 만물의 원리이자 규칙을 의미했고, 그 점에서 이익이 언급한 "사물이 있으면 규칙이 있다."는 『시경』 구절은 명물학보다 격물학에 더 잘 어울리는 것이기도 했다. 유념할 것은 그 물리가 표상하는 세계란 근대 자연과학에서와는 달리 개체들 사이의 위계적 질서가 강조되는 세계였다는 점이다. 이 점은 주희가 張載의 '만물일체'와 대비하여 '理一分殊'를 설명하는 대목에 잘 나타났다. "一理라고 하여 하나로만 간주해서는 안 된다. 그 안에 각각 등급과 차별이 있으니, 가족 안에도 등급의 구별이 있는 것과 같다."[40] 이러한 위계적 질서관은 오랜 시간을 두고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지배해 갔다. 이규경이 대상과 관련한 본말・선후의 양상을 밝히는 것이 변증의 과제라고 했을 때, 그것이 의미하는 것 역시 저 차별과 등급의 질서 안에서 대상의 위치를 해명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았다.

변증과 관련한 이규경의 언급은 이렇게 전통적인 지식론의 범위 안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오주산고』의 지식 세계를 주자학적 물리 관념의 체계로만 파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이규경은 명물・격물과 박물을 하나의 의미 영역 안에서 혼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점은 그가 여전히 과거의 지식 세계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음을 의미하기

39) 西村三郎, 『文明のなかの博物學』 上, 東京: 紀伊國屋書店, 1999, 110면. "명물학은 사물의 명칭에 관한 학문이지만, 단순히 물명을 논하는 것은 아니고, 주로 옛 문헌에 나오는 명칭의 실체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시대의 경과와 함께 말의 변천・오용・혼란이 일어나서 물과 그 명칭의 상위가 종종 발생한다. 이것을 바로잡는 일이 예부터 학문의 기본적인 과제의 하나로 중시되었다."

40) 朱熹, 黎靖德 編, 『朱子語類』 권98, 中華書局, 1983, 2524면. "西銘大綱是理一而分自爾殊. (…) 不可認是一理了, 只滾做一看. 這裏各自有等級差別, 且如人之一家, 自有等級之別."

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조금씩 결이 다른 학문방법론 전통들이 그에게서 뒤섞이고, 이를 통해 지식에 대한 새로운 감각이나 이해가 싹트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단서이기도 하다. 이런 측면에서 『오주산고』의 서문은 음미할 가치가 있다.

> 이른바 名物度數라는 것은 한 번도 끊긴 적이 없지만 그 정수[精蘊]의 깊은 뜻은 아무도 드러내지 못해 거의 인멸될 지경이 되었다. 명대 말기에 이르러 중국의 인사들이 차차 뛰어들어 유행을 이루니, 이 道를 모르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게 되었다. 徐光啟와 王徵 같은 사람들이 떨쳐 일어나 끊어진 학문의 뒤를 이어 많은 것을 계발하고 象數之學을 창시함으로써 名物度數가 세상에 다시 환히 밝혀졌다. 그 이후로 전문 명가들이 조금씩 나타났다. 대체로 명물도수지술은 성명의리지학에 못 미치는 것이라 하더라도 한쪽에 제쳐두고 마치 이단 대하듯이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 학문이 동방으로 흘러들어와 뜻있는 선비들이 마음을 다해 본받고 힘껏 파고들었지만, 이목에 구속되어 다만 그 껍데기만 알고 정수는 이해하지 못하였으며, 비록 평소에 이야기는 할 수 있어도 실용에 임해서는 깜깜하였다. 모두 그 本原이 어디에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물어보면 우물거리기만 할 뿐 도리어 처음부터 모르는 것만 못하였다. 상수지학은 비록 聖學처럼 심오하지는 않더라도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41]

이 인용문에는 두 쌍의 용어 대비가 등장한다. 하나는 명물도수지술과 성명의리지학의 대비이다. 이규경은 이 대비를 통해 전자가 비록 후자보다 못하기는 하지만 역시 가치 있는 것임을 주장한다. 이 가운데 명물도수지술(학)은 남송 朱質의 표현대로 '사물의 명칭을 변별하고 그 크기와 수효를 분석하는 것'[42]을 핵심 방법으로 삼는다. 명물과 도수는 본래 별개라고 해야 하겠지만, 명물도수로 연칭되면서 종래 명물학의 의미 영역을 확장하고 분명히

41) 李圭景, 「序」, 『五洲衍文長箋散稿』. "所謂名物度數者, 未嘗間斷, 而其精蘊之奧旨, 則無人發明, 類同堙沒不傳矣. 逮于皇明之末造, 中土人士駸駸然入于其中, 打成習尙, 以不知此道爲恥. 如徐玄扈王葵心之流, 崛起絶學之後, 多所啓發, 創始象數之學, 名物度數, 煥然復明於世. 從玆以後, 耑門名家稍稍出焉. 大抵名物度數之術, 縱不及性命義理之學, 亦不可偏發不講, 視若異端也. 此學流入東方, 有志之士, 盡心擬摸, 力追深奧, 局於耳目, 但領其皮殼, 未會其精蘊, 平居雖能言之, 臨用眴晦, 竝未曉其本原之何在, 叩之則囁嚅爾爾, 反不如初無所知者. 象數之學, 雖非聖學之奧深, 不可易言者也."

42) 朱質, 「跋李刻方言」, 揚雄, 『方言』. "凡其辨名物, 析度數."

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조선에서 명물도수는 喪禮書의 服制論 등 몇몇 분야에서 간혹 거론되다가, 대략 18세기 중반을 경과하면서 여러 분야에서 빈번하게 출현하기 시작하였다. 그 배경에 서학과 고증학 등의 영향이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다른 하나는 상수학과 성학의 대비인데, 마찬가지 논법으로 상수학의 가치를 긍정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상수학은 한대 역학에 연원을 두는 것으로서 송대 邵雍 등에 의해 나름의 세계 해석 틀을 갖춘 학문 분야로 자리를 잡아 온 것이다. 그런데 이규경은 여기서 서학 형성기의 대표적인 인물인 서광계와 왕징 등이 상수학을 창시했다고 함으로써 우리를 멈칫하게 한다. 창시라는 표현이 실수나 착오가 아니라면, 그것은 서학이 상수학 내지 학문 일반에 끼친 영향을 강조하려는 의도 외에 다른 것일 수 없다.

인용문의 핵심적인 뜻은 단순히 명물도수와 상수학의 가치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다. 그것은 명물도수와 상수를 긴밀히 연계 내지 동일시하고, 나아가 만물에 개재하는 도수 즉 수적 질서의 파악을 학문의 정수 또는 본원으로 간주하는 데 있다. 인용문에는 어디에도 '상'이나 '명물'을 연상케 하는 대목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그가 여전히 명물도수와 상수학이라는 용어를 고수하는 것은 학문 전통에 대한 고려일 뿐, 그의 관심이 수에 집중되어 있었음은 틀림이 없다.

이상의 관점은 『오주산고』의 본문 전체에 걸쳐 충분히 관철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그것은 사전에 확립되어 있었다기보다 책의 편찬 과정에서 새롭게 얻은 통찰이고, 저 서문 역시 편찬 과정의 최후에 덧붙여졌을 가능성이 크다. 새로운 통찰을 가능하게 했던 요인으로는 무엇보다 수학 분야의 지식이 확대되었다는 사실을 들어야 할 것이다. 『오주산고』에는 인사편/기예류/산수 분류의 8항목을 비롯하여 길고 짧은 수학 관련 기사가 제법 등장한다. 이 기사들은 대체로 위 서문의 관점에 부합한다. 우리는 서문의 논지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그 문장 몇 개를 다음과 같이 발췌하여 재구성해 볼 수 있다.

"수는 실로 격물치지의 한 大端이다."[43] 아마도 이 말이야말로 『오주산고』에서 수에 관한 최고 수준의 일반적 언명이라 할 것이다. 그는 한편으로 수가

「하도」·「낙서」 및 태극에 연원을 둔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만력 연간에 서양인들이 처음 중국에 들어와 오로지 상수로 법을 세웠는데, 그 술법이 詳密하고 精緻하여 羲和를 이을 만했다."고 하였다.[44] 수학에 기초하는 서학의 우수성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본래 중국에서 기원했다는 西學中源說을 견지하는 모습이다. 나아가 그는 『幾何原本』에 관한 독립 항목을 설정하여, 『기하원본』이란 제목의 책으로 서광계가 출판한 마테오 리치 저작본과 『數理精蘊』에 실려 있는 강희제 개찬본(사실은 Ignace Pardies의 책을 번역한 별도의 책) 두 가지가 있다는 등의 사실을 소개하고, 자신도 책을 빌려 3일 동안 베껴두면서 그 대의를 알 수 있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기하원본』은 '수학의 所以然之故'를 기록한 것이므로, "초학자들은 반드시 먼저 이 책을 이해한 후에야 象數의 세계에 입문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45]

사실 이러한 지식의 대부분은 그도 언급하고 있는 『수리정온』에 기초한다. 『수리정온』은 『기하원본』과 『算法原本』을 실어서 서양 수학을 소개하는가 하면, 중국의 전통 수학 내지 수리 관념을 활용하는 데도 적극적이었다는 점에서 중서 수학의 종합을 지향했다는 평가를 받는다.[46] 이 책은 18세기 중반경 조선에 전해져 徐浩修(1736-1799)를 포함한 여러 학자들에게 읽히고, 그들이 수학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 그리고 이규경의 동시대 인물인 남병철(1817-1863)에 이르러 수학에 대한 관점에 일정한 변화가 생긴다. 남병철은 江永(1681-1762)의 학문을 가리켜, "상수학은 본원을 훤히 꿰뚫었고 西法을 고수하여 그 깊고 정미함을 밝혔다."고 칭송하였다. 강영은 『수리정온』류의 서학중원설에서 벗어나 서학과 중학의 혼효를 거부한 인

43) 李圭景, 「數原辨證說」, 『五洲衍文長箋散稿』. "數原於河·洛, 而太極又爲其本焉. (…) 數實格物致知之一大端也."

44) 李圭景, 「天皇會通補說辨證說」, 『五洲衍文長箋散稿』. "萬曆間, 西人始入中國, 專以象數立法, 其術之詳密精緻, 可續羲和, 而全以數而出於理."

45) 李圭景, 「幾何原本辨證說」, 『五洲衍文長箋散稿』. "幾何原本有二, 其一皇明徐光啓所槧利西泰《原本》也, 其一淸聖祖康熙改本, 而入數理精蘊者也.[幾何原本, 凡三冊六編, 皇明萬曆丁未, 西人利瑪竇與徐太史光啓譯而爲書, 乃數學之所以然之故也, 初學必先解此書, 然後可入象數之閫域矣.] (…) 予借鈔, 凡三日迄工, 然仍束庋不講, 而能識其大義而已."

46) 김문용, 『조선후기 자연학의 동향』,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2, 161-165면.

물인데, 남병철이 바로 그의 관점을 따랐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상수학'이라는 용어가 그에게서도 전시대의 유산으로서 여전히 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함께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이규경이 서학의 직·간접적인 영향하에 수학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만물에 개재하는 수적 질서에 눈을 돌린 사실은 과연 『오주산고』 전체 또는 조선후기 지식사의 맥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앞의 추정대로 그것이 『오주산고』 편찬 과정의 최후에 얻은 것이라면, 그것이 곧 『오주산고』의 논리적 결론으로서 조선후기 지식사 전개의 새로운 이정표로 간주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가?

이 문제의 검토를 위해, 그가 명물·박물과 병렬하곤 했던 격물의 문제를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격치는 이미 14세기부터 사물 또는 자연에 대한 탐구 일반을 지칭하는 용어로써 박물학적 유서나 醫書의 표제로도 사용되어 왔고,[47] 격물 역시 서학의 형성 이후 비슷한 용례를 많이 보여 왔다. 이규경의 격물 용법 역시 그 흐름 위에 있는 것임은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면 그의 격물은 과연 어떤 함의를 가지고 있었는가? 『오주산고』에는 제법 긴 「격물변증설」 한 편이 실려 있어 이에 참고할 만하다. 이규경은 격물이야말로 『대학』의 총결이고, 격물에 관한 논란은 정·주의 傳註와 왕수인의 『전습록』 가운데 몇 마디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것에 불과하다고 전제한 후, 양측의 주요 논의를 열거하고 변증을 시도하였다. 毛奇齡에 대한 긴 언급 가운데 한 단락인 다음을 통해 우리는 그의 격물론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 毛氏가 「自爲墓誌銘」에서 말하였다. "嵩陽의 시장통에서 高笠이라는 승려가 내게 『대학』에 대해 가르쳐 주기를, '(…) 북송 때는 陳摶의 학문을 조술하여 性命을 高談하되 事爲에 소략하였으니, 그 폐단이 거의 忘身에 이르렀다. 남송 때는 程頤의 학문을 종주로 삼아 사물에 나아가 심성을 구했는데, 사물을 궁구해 하나도 얻지 못하고 앉아서 심성을 잃었다. [주희가 李侗을 추종하고 程頤를 사숙하여, 물리를 탐구함에 形器를 위주로 삼았으며, 『시』·『역』·『사서』·『이소』·『참동계』를 주석하고, 『의례』·『가례』·『十七史』를 편집하고, 괘변·태극·황극·율려 등

47) 김선희, 「격물궁리지학, 격치지학, 격치학 그리고 과학」, 『개념과 소통』 제17호, 한림과학원, 2016, 120면.

> 여러 상수를 궁구하였지만, 사실을 고찰하지 않고 진리[眞是]를 추구하지 않아 한 결같이 오류투성이이다.](…)' 나는 3일 동안 공부하다가 그만두었다." 이것은 육상산의 여파가 아니겠는가? 정·주를 망령되이 저주하는 것은 모기령의 평생 버릇이었으니, 말할 게 있겠는가![48]

이규경은 전체적으로 정·주의 관점에서 육·왕류의 격물설을 비판하는 입장에 서 있었다. 모기령은 18세기 이후 조선 지식인들의 공적이다시피 했으므로 그에 대한 이규경의 강한 비난은 특별할 것이 못 된다. 다만, 모기령이 고립이라는 승려의 견해를 인용하면서 자신의 설명을 덧붙인 것으로 볼 수 있는 [ ] 안의 細注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는 여기에서 주희의 격물설이 실패한 원인으로, 외부의 형기에서 물리를 탐구하고, 상수의 탐구에 사실과 진리를 추구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모기령은 성명과 사위, 심성과 사물의 균형을 추구하는 듯하지만, 주희에 대한 그의 비판점만큼은 분명히 그 객관주의적 인식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셈이다.

그러면 모기령을 육구연 심학의 여파로 간주하는 이규경은 주희 격물설의 인식론적 객관주의를 충분히 인지하고 지지했는가? 이규경은 「격물변증설」의 마지막에 李光地의 견해를 인용하면서 여러 설의 분란을 절충할 수 있는 '中流의 砥柱'라고 긍정하였다. 이때 이광지의 견해란 "초목의 냄새와 맛을 하나하나 구별하는 것은 醫家의 일이지 儒者의 급무는 아니다."라는 주장도 포함하는 것이었다.[49] 다시 보자면, 「격물변증설」에서 이규경은 정·주 격물설의 객관주의를 강조하기보다 육·왕이 정·주를 객관주의자로 오해했다고 변명하는 데 치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결국, 수가 격물치지의 大端이라고 했던 그의 언급은 '사실에서 진리를 추구하는' 방법론적 각성까지 동반한 것은 아니었다.

---

48) 李圭景, 「格物辨證說」, 『五洲衍文長箋散稿』. "毛西河四書賸言曰, 嵩陽廟市一僧高笠, 取大學一本教余鬻曰 (…) 北宋祖陳摶之學, 高談性命, 而略于事爲, 其弊也, 近乎忘身. 南宋宗程頤之學, 就事物以求心性, 究之事物, 無一得而坐失心性.[朱熹從李侗, 私淑程頤, 格物理, 主形器, 注詩易四書離騷參同契, 輯儀禮家禮十七史, 究卦變太極皇極律呂諸象數, 而不考事實, 不求眞是, 一往謬誤.] (…) 予爲受學三日去云. 是獨非象山之餘波耶? 夫西河之妄詆程·朱, 乃是平生習氣也, 何足道哉!"

49) 같은 글. "榕村李氏, 近世宗師程朱之正儒也. 其集有問格物之義曰, (…) 至如草木臭味, 種種各別, 此則醫家之所宜悉, 而非儒者急務. (…) 此足以折衷諸儒之紛紜, 故愚嘗以爲中流之砥柱也."

5. 유서 지식의 향배

16세기의 『攷事撮要』나 『대동운부군옥』 등 몇몇 경우를 예외로 하자면, 조선에서 유서의 출현과 유통은 임란 이후 지식의 팽창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유서는 지식의 회집, 항목화, 분류, 변증을 통해 많은 양의 지식을 집적하고 전승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문체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상대적으로 지식 생산의 국외 의존도가 높고 국내 지식유통의 여건이 충분히 갖춰지지 못한 조선에서 지식의 확산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것이었다.

유서의 지식은 무엇보다 방대한 분량과 범위에서 특징이 두드러진다. 이 점은 보통 유학 내부의 박학 전통과 결부되어 이해되고, 나아가 주자학과는 대척 관계에 있던 것으로 간주되곤 한다. 그러나 주자학은 원칙적으로 박학을 부정했다고 보기 어렵고, 『지봉유설』이나 『성호사설』이 지행의 문제 등, 주자학의 핵심적인 교의에서 벗어났다고 볼 만한 증거 역시 많지 않다. 서학을 포함하여 새로운 지식이 불어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것이 곧 탈주자학의 지표일 수는 없는 것이다.

조선에서 박학에 대한 도학적 경계는 유서 등을 통해 지식의 증대가 실현되어 가면서 함께 점진적으로 강화되었다. 바꿔말하면 박학에 대한 일부 지식인들의 각성으로 유서가 편찬되고 지식이 증대했다기보다, 지식의 증대가 박학과 도학의 분화를 야기했다고 보는 편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18세기 중반 이후 박물 또는 명물도수에 대한 관심이 일부 지식인들에게 확산되면서 양측의 입장과 지향 차이는 분명해졌던 것으로 보인다.[50] 『오주산고』는 바로, 관심을 박학에서 박물로 이어간 계열의 중요한 성취 가운데 하나였다. 그것은 박물을 통해 조선후기 지식사의 전환점 언저리까지 다다를 수 있었다.

다양한 수준의 변증을 수반하는 유서는 조선후기 지식의 심화에도 기여하였다. 유서의 방법론은 한편으로 한대 이래의 명물학 전통에 기대어 있었다. 명물학은 사물의 명칭을 주요 탐구 대상으로 삼는 것이면서, 고전을 지식 변

50) 명물도수 또는 박물을 둘러싼 18세기 중반 이후 양측의 대립은 다음을 참조할 것. 노대환, 「18세기 후반-19세기 전반 名物學의 전개와 성격」, 『한국학연구』 제31호,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13.

증의 기준으로 끌어들이고 차별과 등급의 위계적 세계관을 정당화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명물학이 조선후기 유서의 방법론을 포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런 가운데 『오주산고』에는 박물학에 대한 관심과 병행하여 만물의 수리 질서에 대한 재인식이 나타났다. 이는 도수에 대한 인식을 강화함으로써 명물도수지술을 온전하게 복원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분명 서학의 영향하에 이루어진 것이지만, 여전히 전통적인 상수학의 외피를 걸치고 있었고, 그나마도 아직 저작 전체를 관통하는 방법론 차원의 새로운 함의를 가지는 것은 아니었다.

니시무라 사부로는 동아시아와 유럽 박물학의 공통점에 착안하면서, 그것을 "널리 物에 대한 정보를 수집・기록하고, 그것을 분류・정리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개물에 관해 밝혀진 사실을 설명하고 그것들이 기반을 이루는 이론이나 법칙성까지 탐색해 가려고 하는 학문 내지 지식체계"라고 규정한다.[51] 여기서 말하는 이론이나 법칙성 문제를 『오주산고』 같은 유서에 대입하고자 할 때, 핵심적인 검토 대상으로 떠올릴 만한 것이 바로 그 물리 개념이다. 현행 『오주산고』의 '인사편/논학류/박물' 분류에는 9항목이 실려 있는데, 그 가운데 「物理難究辨證說」과 「物類感應辨證說」은 물리를 직접 논하는 것들이다. 특히 후자는 『博物志』 전통을 계승하는 송대 贊寧의 『物類志』부터 方以智의 『物理小識』와 湯若望(Adam Schall)의 『坤輿格致』까지의 박물서를 '물리의 淵藪'라고 칭하여 주목을 받는다. 그런데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사실은, 그가 말하는 물리란 바로 '물류가 감응하는 이치(物類感應之理)'로 대변되는 어떤 것이라는 점이다.[52] 그것은 이규경이 수리에 새롭게 눈뜨면서 여전히 상수학을 거론하고, 박물과 격물을 병칭하면서도 인식론적 객관주의에 충분히 착안하지 않았던 사실들과 두루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51) 西村三郎, 앞의 책, 4면.

52) 李圭景, 「物類感應辨證說」, 『五洲衍文長箋散稿』. "夫物類感應之理, 若非神聖, 不得一斑之見, 然古有雷敦創論大略, 以爲發端, 嗣後散見群書, 指不摟數, 而其專門爲書, 毋慮數十家. 張華博物志, 李石續博物志, 又有廣博物志, 然不足爲崇門. 宋僧贊寧物類志, 蘇軾物類相感志, 鄧九炤物性志, 王宣物理所, 方以智物理小識, 湯道未坤輿格致, 可謂物理之淵藪者也."

▮ 참고문헌

『周易』.

權文海, 『大東韻府羣玉』.
揚 雄, 『方言』.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李睟光, 『芝峯類說』.
_____, 『芝峯集』.
李 瀷, 『星湖僿說』.
朱 熹, 『論語集注』.
_____, 『孟子集注』.
_____, 『中庸章句』.
_____, 黎靖德 編, 『朱子語類』.
陳元龍, 『格致鏡原』.
胡 宏, 『知言』.

강민구, 「『성호사설』의 『지봉유설』, 『송남잡지』의 『지봉유설』·『성호사설』 인용 양상에 대한 연구」, 『한문학보』 제24호, 우리한문학회, 2011, 495-533면.
김문용, 『조선후기 자연학의 동향』,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2.
김채식, 「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산고』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08.
_____, 「『성호사설』과 『오주연문장전산고』의 저술성향 비교검토」, 『동아시아고대학』 제26집, 동아시아고대학회, 2011, 61-99면.
노대환, 「18세기 후반-19세기 전반 名物學의 전개와 성격」, 『한국학연구』 제31호,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13, 541-572면.
류기수, 「『皇華集』의 간행과 수록된 明詞에 관한 고찰」, 『중국학연구』 제47집, 중국학연구회, 2009, 91-125면.
마들렌 피노, 이은주 옮김, 『백과전서』, 한길사, 1999.
심경호, 「성호의 僿說과 지식 구축 방식(1)」, 『민족문화』 제49호, 한국고전번역원, 2017, 137-186면.
_____, 「성호의 僿說과 지식 구축 방식(2)」, 『민족문화』 제50호, 한국고전번역원, 2017, 245-299면.
안대회, 「이수광의 『지봉유설』과 조선 후기 명물고증학의 전통」, 『진단학보』 제98호, 진단학회, 2004, 267-290면.
오영균, 「중국 유서의 전통과 『운부군옥』이라는 책의 역사」, 『조선의 백과지식—『대동운부군옥』으로 보는 조선시대 책의 문화사』, 옥영정 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劉葉秋, 金長煥 옮김, 『中國類書概說』, 학고방, 2005.
윤사순, 『한국유학논구』, 현암사, 1980.
이규경, 최주 註譯, 『오주서종박물고변』, 학연문화사, 2008.

정대현, 『지식이란 무엇인가?—지식개념의 일상언어적 분석』, 서광사, 1990.
진재교, 「조선조 후기 유서와 인물지의 학적 시야—지식·정보의 집적과 분류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제101집,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8, 67-102면.
陳必祥, 심경호 옮김, 『한문문체론』, 이회, 1995.
피터 버크, 박광식 옮김, 『지식의 사회사 1—구텐베르크에서 디드로까지』, 민음사, 2017.

西村三郎, 『文明のなかの博物學』 上, 東京: 紀伊國屋書店, 1999.

【Abstract】

Characteristics of Knowledge of *Yuseo* in the late Joseon Dynasty

Kim, Moon-Yong*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knowledge that was collected and transferred by way of yuseos in the late Joseon Dynasty. A yuseo is characterized by its stylistic nature of gathering, itemizing, classifying, and verifying of knowledge, making it effective for collecting and transferring large amounts of knowledge. This allowed it to properly reflect the expansion of knowledge after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In principle, polymathy was not rejected in Neo-Confucianism. The wariness of Neo-Confucianists against polmathy was strengthened together as knowledge increased. The differences in positions and directions between polymathy and Neo-Confucianism have become more clear since the mid-18th century, with interest in the natural history or artisanal arts spreading to some intellectuals. *Ojuyeonmun Jangjeonsan'go* was one of the achievements of that process.

Yuseo, on the one hand, exploited the tradition of the study of names since Han dynasty. The study of names was to draw classics as a standard for verification of knowledge and to justify hierarchical worldviews. A re-recognition of the mathematical order of things appeared in parallel with the interest in natural history at *Ojuyeonmun Jangjeonsan'go*. It was certainly done under the influence of the West-Learning. But it still took the tone of traditional *Sangsuhak*, and yet not at all had the value of methodology that covers the whole work. Until then the principle of things in *yuseos* in the late Joseon Dynasty did not deviated significantly from the traditional knowledge system.

Keywords: *yuseo*, classification, verification, study of names, polymathy, study of things, innate laws of things.

접수일: 2019.04.01. ‖ 심사일: 2019.04.10. ‖ 게재확정일: 2019.05.03.

* Professor, Research Institute of Korean Studies, Korea University.